

이슬람 5개 국가의 문화변화: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터키, 이집트 비교연구*

이지석 ■ 세명대학교**

양오석 ■ 강원대학교***

라울 모레티 ■ 강원대학교****

권종욱 ■ 강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슬람 국가의 문화가치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슈워츠(Schwartz)의 10가지 가치관과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터키, 이집트의 경우 복잡한 패턴을 보였지만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들 5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전통, 안전, 보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의 영역에서 말레이시아, 이집트, 요르단은 자기초월이 높아졌고 터키와 이집트는 변화에 대한 보수주의에서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모로코와 말레이시아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지고 보수주의 경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주제어: 이슬람, 슈워츠 차원, 문화 변화

I. 서 론

본 연구는 이슬람 국가의 문화가치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828)

** 주저자, 세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E-mail: jiseok@semyung.ac.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E-mail: osyang30@kangwon.ac.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E-mail: moretti@kangwon.ac.kr)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E-mail: jwkwon@kangwon.ac.kr)

문화가치관 변화는 비교경영의 핵심주제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가치관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가치관은 변화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된다는 주장(Hofstede 2001)이 있고 반대로 문화가치관은 변화한다는 연구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Taras et al. 2012; Inglehart and Baker 2000).

지금까지 국가 단위에서 문화가치관 변화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이슬람 국가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glehart와 Baker(2000)의 연구에서 전 세계 65개 국가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이슬람 국가는 나이지리아, 터키 등 극소수의 국가만 포함하고 있다. 또한 Taras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 포함되어 있고 Tang와 Koveos(2008)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몇 개의 국가만 다루고 있다. 결국 기존의 문화변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이슬람 국가의 문화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직 문화가 변화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문화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문화는 지속되며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문화변화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Taras et al.(2012)과 InglehartBaker(2000), Tang과 Koveos(2008)가 있고 문화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Hofstede(2001)가 있다. Hofstede는 단기간에 문화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며 문화가치관은 적어도 100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경영학에서 중요한 핵심 연구주제인 문화변화는 현재시점에서 결론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문화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연구도 연구방법이 상이하고 분석대상에 포함된 가치관 차원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문화가 변화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문화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방법이 모두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Tang와 Koveos(2008)의 연구는 Hofstede 모형을 기초로 문화변화결정요인을 포함하는 추정회귀식을 통해 변화된 문화점수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문화변화 점수라기보다는 추정점수가 된다. 반면 Taras et al.(2012)의 논문은 Hofstede 문화 모형을 활용한 기존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문화가 변화해왔다는 것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반면 Inglehart와 Baker(2000)는 전 세계 65개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두 기간 동안의 문화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로는 이슬람국가의 문화가치관이 변화했는지?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증 가치가 있는 문화변화라는 주제를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기존 연구가 부족하여 Taras et al.(2012) 연구처럼 메타 분석을 할 수가 없고 Tang과 Koveos(2008)의 연구처럼 추정식 도출도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행히 World Value Survey에서 이슬람 국가를 포함하는 연구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World Value Survey에서 공개하고 있는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Wave 5와 Wave 6 간의 변화를 슈워츠(Schwartz) 가치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 변화에 대한 연구

국가 단위에서의 문화가치관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홉스테드는 문화가치관의 극단적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가치관은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Hofstede 2001). 반면 문화는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이들은 문화변화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가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World Value Survey는 81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연구에서 문화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몇 십년간의 상당히 짧은 기간에도 문화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nglehart and Baker 2000; Murphy et al. 2004; Olivas-Lujan Harzing & McCoy 2004).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화가치관 변화를 연구한 논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화가치관 변화에 대한 문화가치관 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논문은 Taras et al.(2012)이다. 이들은 홉스테드 문화모형을 활용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451개 논문을 분석하였고 이들 논문에서 분석한 국가의 수는 49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 세계 49개 국가의 문화가치관이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문화가치관은 개인주의, 권력거리, 남성성과 불확실성회피 등 4개의 차원이 포함되었다. 결국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4가지 문화차원이 1980년부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문화

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문화가치관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시지표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예를 들면 권력거리는 인적자원개발 지수, 소득불균형, 정치적 자유, 부패지수와 관련이 있었고 남성성은 의회에서의 여성비율, 승진의 중요성, 보수의 중요성 특허수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 1〉 문화변화에 대한 주요 연구와 분석 국가

국가	Tang and Koveos(2008)	Taras et al.(2012)	Inglehart and Baker(2000)
아프리카		○	
아르헨티나	○		○
호주	○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
불가리아		○	○
브라질	○		○
캐나다	○	○	○
칠레	○		○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		
덴마크	○	○	
체코		○	○
에콰도르	○		
살바도르	○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
영국	○	○	○
가나			●
그리스	○	○	
과테말라	○		
홍콩	○	○	
헝가리		○	○
인도	○	○	○
인도네시아	●	●	
이란	●		
아일랜드	○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
자메이카	○		
일본	○	○	○

국가	Tang and Koveos(2008)	Taras et al.(2012)	Inglehart and Baker(2000)
말레이시아	●	●	
멕시코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
파키스탄	●		●
파나마	○		
페루	○		○
필리핀	○	○	○
포르투갈	○	○	
러시아			○
싱가포르	○	○	
남아공	○	○	○
한국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대만		○	
태국	○	○	
터키	●	●	●
우루과이	○		
유고슬라비아		○	
미국	○	○	○
베네수엘	○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
중국	○	○	
폴란드	○	○	○
나이지리아	●		●
짐바브웨	○		
합 계	53	41	37
이슬람국가 비율	7/53	3/41	4/37

주: ○ 분석에 포함된 국가를 의미, ●는 이슬람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

또한 개인주의는 인적자원개발지수, 도시인구비율, 소득수준, 이혼율, 자녀수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불확실성회피는 인플레이션, 부패지수, 범죄율, 실업률, 특히 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문화가 변화한다면 2000년대의 개인주의 가치관 점수는 1990년대의 인적자원개발지수, 도시인구비율, 소득수준, 이혼율,

자녀수 보다는 2000년대의 관련 지수와 관련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4가지 문화차원과 거시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화가 변화했음을 검증하였다. 결국 이들의 연구는 20년간의 문화가치관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가치관 변화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연구로 Tang과 Koveos(2008)를 들 수 있다. 그들은 Hofstede의 문화모형이 1970년대 자료를 활용해 계산되어 지금까지의 문화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Hofstede의 문화 점수를 기초로 문화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서 문화변화 추정식을 도출하여 국가별 변화된 문화점수를 발표하였다. 문화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문화변화를 야기시키는 문화변화요인과 문화를 변화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나뉘었다. 문화변화요인은 경제적 역동성으로 명명하였고 소득수준으로 측정하였고 제도요인은 종교, 언어, 기후, 인종의 다양성, 법률 시스템,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온화한 기후는 남성성과 높은 권력거리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문화차원의 국가 간 차이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후나 국가별 연평균 기온은 단기간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변수를 제도변수로 명명하였다. 반면 문화를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경제발전을 들었다. 경제발전이 문화변화를 일으킨다면 1970년대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가의 문화도 변화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라면 1970년대 자료로 측정한 Hofstede의 전 세계 국가별 문화가치관 점수는 현재 소득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면 국가별 문화가치관 점수는 변동될 것이라는 논리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주의 문화가치관이 높아지므로 1970년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가의 개인주의 점수 또한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가치가 반영된 국가별 점수를 House et al.(2004) 연구에서 개발된 GLOBE(Glob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모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만일 문화가 변화한다면 GLOBE 가치관 모델은 2000년대 발표된 국가별 가치관 모델이므로 원래 Hofstede 국가별 점수보다는 2000년대 자료로 수정된 Tang and Koveos 모델과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결과도 문화변화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화가치관 변동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는 Inglehart와 Baker(2000) 그리고 Inglehart와 Abramson(1994) 연구가 있다. Inglehart와 Abramson (1994) 연

구에서는 물질적 가치관에서 물질적 욕구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면 자유, 자기표현, 삶의 질과 같은 비물질적 욕구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탈 물질주의는 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의 연구에서 1981-1983에서 1990-1991 사이에 8개 유럽 국가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가치관이 물질주의에서 탈 물질주의로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Inglehart와 Baker(2000) 연구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연구에서 수집된 65개 국가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앞의 연구에서 물질적 가치관과 탈 물질주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세속적-이성적 가치관과 생존가치, 자기표현가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통적 가치관과 세속적-이성적 가치관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관이고 생존가치는 자기표현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이 세속적-이성적 가치관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생존가치가 자기표현의 가치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물론 그 반대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전 세계를 신교 유럽, 영어권, 라틴아메리카, 동방 정교, 구교 유럽,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로 분류하고 문화가치관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문화 변화 분석은 자료가 이용 가능한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1년부터 1998년 사이의 문화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속적, 자기표현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가 침체되면 반대로 전통적, 생존가치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지금까지 수행된 국가단위의 문화가치관 변화를 다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Hofstede와 같이 문화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문화는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많다(Tang and Koveos 2008; Taras et al. 2012; Inglehart and Abramson 1994; Inglehart and Baker 2000).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제발전, 소득수준이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문화가치관 변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결과를 제시해볼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문화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Tang과 Koveos(2008) 연구는 Hofstede 문화모델에서 발표된 국가별 점수를 기초로 문화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새

로운 회귀식에 근거하여 문화가치관이 변화된 국가별 점수를 발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Taras et al.(2012) 연구는 기존 연구 중에서 Hofstede 지수를 활용한 연구를 선택해 메타분석을 통해 홉스테드 4가지 문화차원의 시기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국가별 문화점수가 타당한지는 이론적으로 문화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거시지표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Inglehart와 Baker(2000) 연구는 65개 국가의 가치관을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문화변화를 추정하는 방법, 기존 연구를 통합 정리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세 가지 방법 중 설문조사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Tang과 Koveos(2008)의 방법처럼 추정 모델은 추정 점수를 통해 문화변화를 예측하고 예측된 점수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Taras et al.(2012)의 메타 분석은 이슬람 국가의 문화변화에 대한 가치관 분석 연구가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Inglehart와 Baker(2000)의 설문조사 방법은 가능하다. 다행히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슈워츠(Schwartz) 가치관의 변화를 설문조사해서 측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터키, 이집트의 Wave 5와 Wave 6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Wave 5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수행된 연구 자료이고 Wave 6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수행된 조사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수와 기간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슬람 5개 국가의 5년간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III. 연구 방법론

1. 세계가치관 조사와 Schwartz 모델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80여 개국에서 같은 문항을 사용해 세계의 문화의 사회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고 있다.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주도하였고, 1970년대의 조사대상 지역은 유럽에서 전 세계 100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연구는 1980년부터 약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고 현재는 7단계가 수행중이다. 1단계는 1981-1984, 2단계는 1990-1994년, 3단계는 1995-1998년, 4단계는 1999-2004

년, 5단계는 2005-2009년, 6단계는 2010-2014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슈워츠(Schwartz) 가치관 항목은 5단계와 6단계 연구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슬람 국가연합(OIC: Organization of Islam Countries)에 포함된 57개 국가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고 싶었다.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국가에 대해 다른 시점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터키, 이집트의 Wave 5와 Wave 6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5개 이슬람 국가의 5년간의 가치관 변화를 조사해보았다. Wave 5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수행된 연구 자료이고 Wave 6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수행된 조사 자료이다.

2. Schwartz 10개 가치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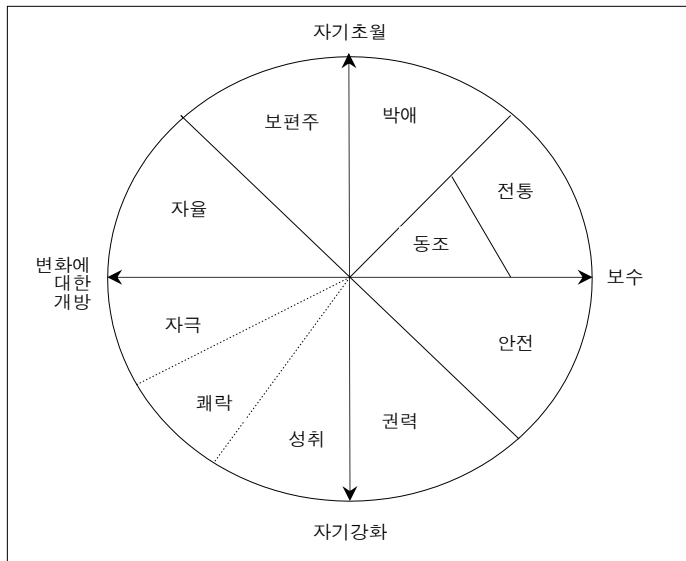
슈워츠(Schwartz) 가치관 모형은 Rokeach의 가치 연구에 기반을 두고 보편적 가치내용과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가치관 이론 정립에 기여했다(Schwartz 1994). Rokeach의 가치관을 다양한 문화권에 모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유형을 발견하였다.

〈표 2〉 Schwartz 가치관 모형의 가치 유형과 가치 항목

가치유형	측정항목
1. 안전	본인,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는 게 중요하다.
2. 동조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은 중요하다.
3. 전통	전통문화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4. 박애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를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5. 보편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6. 자율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의적인 되며 자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7. 자극	다채로운 삶, 재미있는 삶, 대범한 삶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8. 쾌락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9. 성취	성공하고 성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10. 권력	사회적 힘, 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원래 슈워츠(Schwartz) 모델에서는 56개의 가치관 항목을 사용하여 <표 2>의 10가지 문화가치관을 측정하였으나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아래 10개 항목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발견된 10개의 가치유형은 다양한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비교 문화적 심리학을 넘어 사회과학 및 마케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10개의 가치관 유형은 2차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역동적인 관계가 있으며 대립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변화에 대한 호의적이며 능동적인 성향의 변화에 대한 개방과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은 상반된다. 개인의 권력과 성취를 지향하는 자기강화는 자신보다는 일류의 복지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초월과 대비된다.

<그림 1> Schwartz 가치관 모형



<그림 1>에서 쾌락주의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개방과 자기강화 모두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율, 자극, 쾌락은 변화에 대한 개방에 속하고 전통, 동조, 안전은 보수에 포함된다. 보편주의와 박애는 자기초월에 해당되고 쾌락, 성취, 권력은 자기강화 차원에 속한다.

이러한 슈워츠(Schwartz) 가치관의 특성을 감안해 본 연구는 이슬람 국가들의 가치관 변화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10가지 가치관 항목의 변

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변화에 대한 개방-보수와 자기초월-자기강화 차원에서 문화변화를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10가지 가치관 항목의 변화

요르단의 경우 10개 가치관 중에서 안전 차원을 제외한 9개 차원에서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2005년도 조사시점(wave 5)에 비해 2010년(wave 6)의 5년 동안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자극, 동조, 보편주의, 전통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안전 차원만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율과 쾌락을 제외한 8가지 차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권력, 안전, 박애, 성취, 동조, 보편주의, 전통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였고 자극에 대한 중요성만 감소하여 요르단과는 반대의 변화 패턴을 보였다.

모로코의 경우 박애는 2010년 조사에서 빠져있어 9개 항목만을 분석하였다. 이중 자극, 동조, 보편주의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자율, 권력, 안전, 쾌락, 성취, 전통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터키의 경우 자율과 동조를 제외한 8개 항목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표 3〉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의 가치관 변화

국가		Wave5 (2005-2009) N=1,195	Wave6 (2010-2014) N=1,200	t-values	p values
요르단	자율	4.72 (8)	4.43 (8)	5.602	0.000
	권력	4.04 (10)	3.74 (9)	5.071	0.000
	안전	5.25 (6)	5.28 (2)	-0.771	0.441
	쾌락	5.08 (7)	4.82 (7)	5.422	0.000
	박애	5.32 (2)	5.00 (5)	7.967	0.000
	성취	5.27 (4)	5.08 (4)	4.164	0.000
	자극	4.36 (9)	3.50 (10)	13.563	0.000
	동조	5.31 (3)	4.92 (6)	8.489	0.000
	보편주의	5.26 (5)	5.09 (3)	3.945	0.000
	전통	5.51 (1)	5.35 (1)	4.134	0.000
순위상관계수 = .758*					변화된 가치관 항목 = 9/10

국가		Wave5 (2005-2009) N=1,195	Wave6 (2010-2014) N=1,200	t-values	p values
말레이 시아	자율	4.15 (5)	4.15 (6)	-0.040	0.968
	권력	3.71 (8)	3.84 (8)	-2.293	0.022
	안전	4.56 (1)	4.90 (1)	-7.288	0.000
	쾌락	3.37 (9)	3.43 (9)	-0.917	0.359
	박애	4.16 (4)	4.56 (5)	-8.766	0.000
	성취	3.83 (7)	4.01 (7)	-3.403	0.001
	자극	3.20 (10)	3.03 (10)	2.809	0.005
	동조	4.11 (6)	4.63 (4)	-10.348	0.000
	보편 주의	4.21 (3)	4.71 (3)	-11.175	0.000
	전통	4.34 (2)	4.83 (2)	-10.627	0.000
순위상관계수 = .964**					변화된 가치관 항목 = 8/10
국가		Wave5 (2005-2009) N=1,197	Wave6 (2010-2014) N=1,192	t-values	p values
모로코	자율	4.71 (4)	3.82 (5)	15.565	0.000
	권력	4.22 (10)	3.15 (9)	16.660	0.000
	안전	4.99 (2)	4.70 (2)	6.049	0.000
	쾌락	3.64 (5)	3.29 (8)	5.514	0.000
	박애	4.74 (3)	-	-	-
	성취	4.31 (9)	3.49 (6)	12.120	0.000
	자극	3.32 (8)	3.25 (7)	0.938	0.349
	동조	4.51 (7)	4.60 (3)	-1.636	0.102
	보편주의	4.58 (6)	4.53 (4)	0.911	0.362
	전통	5.17 (1)	4.99 (1)	4.156	0.000
순위상관계수 = .717*					변화된 가치관 항목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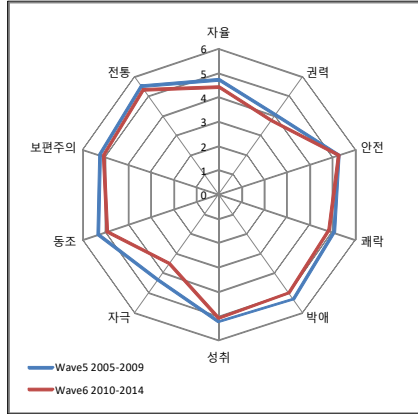
주) () 안은 순위를 나타냄

권력, 쾌락, 자극은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안전, 박애, 성취, 보편주의, 전통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복잡한 변화 패턴을 보였다. 이집트의 경우 10개 항목 중 모두가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자율, 권력, 자극의 중요성은 증가한 반면 다른 가치관 항목은 모두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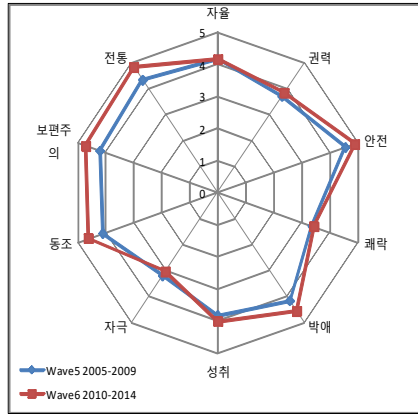
결국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터키, 이집트의 경우 복잡한 패턴을 보였지만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치관의 중요성 순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 5개 국가 모두 전통, 안전, 보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표 4〉 터키, 이집트의 가치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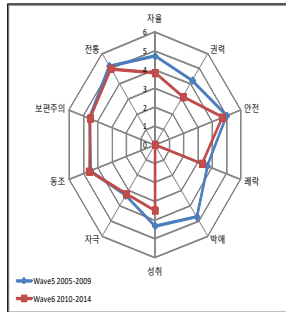
국가		Wave5 (2005-2009) N=1,345	Wave6 (2010-2014) N=1,602	t-values	p values
터키	자율	4.72 (6)	4.68 (5)	0.911	0.363
	권력	3.37 (9)	3.72 (9)	-6.534	0.000
	안전	4.95 (4)	4.84 (2)	2.688	0.007
	쾌락	4.04 (8)	4.39 (8)	-6.956	0.000
	박애	4.96 (3)	4.80 (3)	4.283	0.000
	성취	4.75 (5)	4.67 (6)	1.992	0.046
	자극	3.22 (10)	3.61 (10)	-6.655	0.000
	동조	4.59 (7)	4.52 (7)	1.562	0.118
	보편주의	5.02 (2)	4.76 (4)	6.904	0.000
	전통	5.05 (1)	4.89 (1)	4.241	0.000
순위상관계수 = .939**					변화된 가치관 항목 = 8/10
국가		Wave5 (2005-2009) N=3,050	Wave6 (2010-2014) N=1,523	t-values	p values
이집트	자율	3.91 (8)	4.19 (7)	-3.580	0.000
	권력	2.97 (9)	3.25 (9)	-5.596	0.000
	안전	5.33 (2)	5.22 (2)	21.032	0.000
	쾌락	4.32 (7)	3.70 (8)	18.886	0.000
	박애	4.94 (4)	4.77 (3)	6.741	0.000
	성취	4.51 (6)	4.35 (6)	6.787	0.000
	자극	2.32 (10)	2.48 (10)	-17.782	0.000
	동조	5.29 (3)	4.50 (5)	7.901	0.000
	보편주의	4.77 (5)	4.70 (4)	3.795	0.000
	전통	5.72 (1)	5.12 (1)	21.004	0.000
순위상관계수 = .952**					변화된 가치관 항목 =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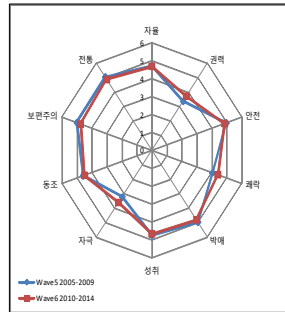
〈그림 2〉 요르단의 문화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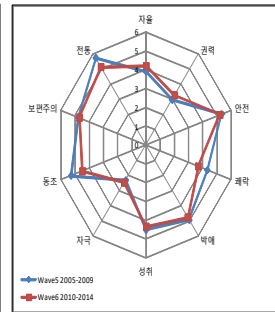
〈그림 3〉 말레이시아의 문화변화



〈그림 4〉모로코의 문화변화



〈그림 5〉터키의 문화변화



〈그림 6〉이집트의 문화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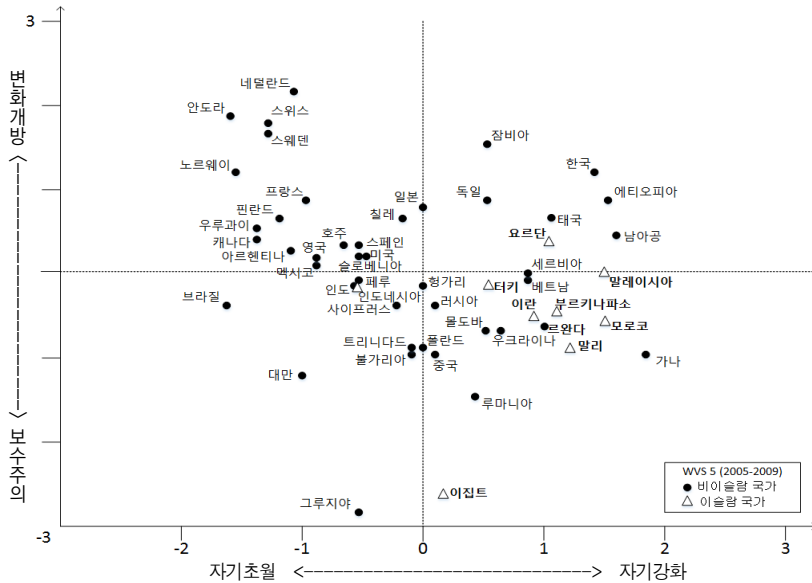
특히 서열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Wave 5와 Wave 6 간의 문화변동에도 불구하고 중요도 순위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요르단의 경우 순위서열 상관계수 값이 0.758, 말레이시아는 0.964, 모로코는 0.717, 터키는 0.937, 이집트는 0.952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2.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분석

이슬람 5개 국가의 문화변화를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형식으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Wave 5(2005-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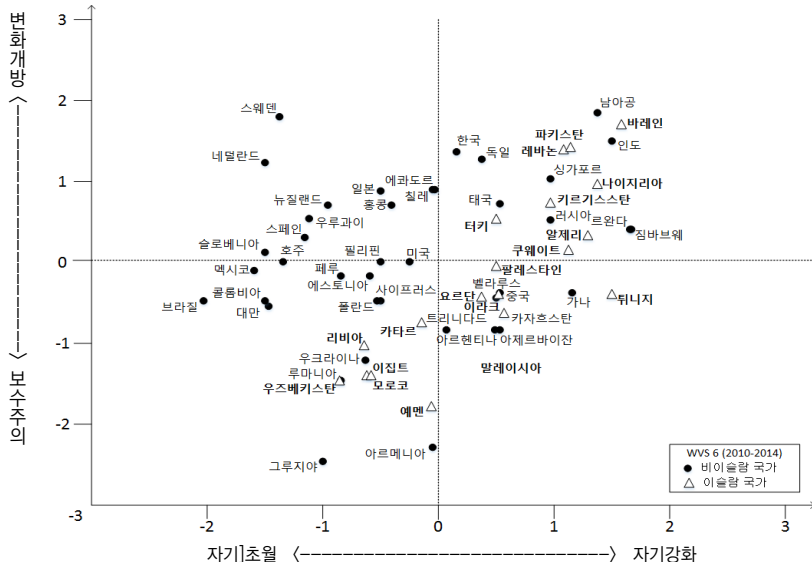
의 자료를 활용해 이슬람국가와 비이슬람 국가의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문화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이슬람국가는 주로 자기강화가 높고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자기초월적인 문화가치관을 보였다.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국가들은 보수주의적이면서 자기초월적인 문화를 보였고, 한국, 잠비아, 남아공, 에티오피아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자기강화가 높은 문화 특성을 보였다.

<그림 7>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문화 : 200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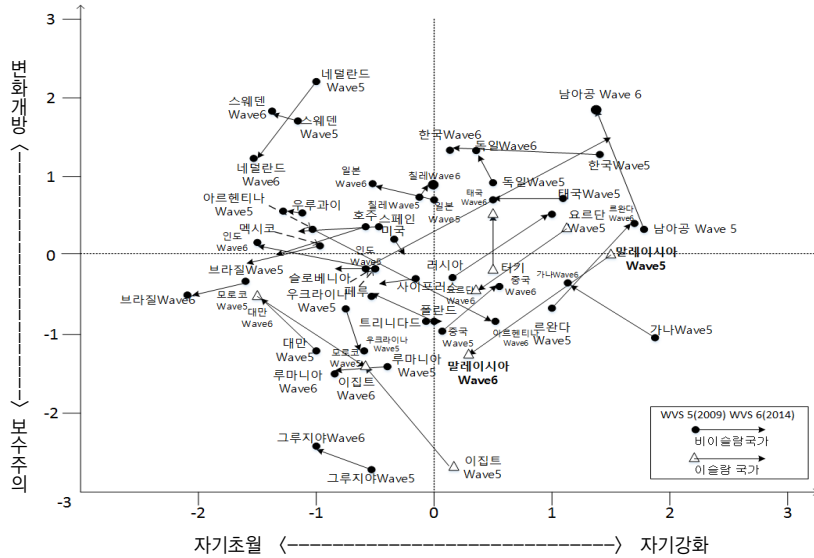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정리

〈그림 8〉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문화 : 2010-2014



우선 Wave 6(2010-2014)의 경우 이슬람 국가와 비이슬람 국가의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문화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림 8>과 같이 이슬람 국가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레바논, 파키스탄, 터키 등은 변화에 대한 개방이 높으면서 자기강화도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튀니지, 카자흐스탄, 요르단, 이라크는 보수주의가 강하고 자기강화가 높은 문화를 보였다. 이집트, 모로코 등은 보수주의가 강하고 자기초월적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개방이 높고 자기초월이 강한 문화권에는 어떤 이슬람 국가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9〉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문화 : Wave 5-Wave 6



자료: 저자 정리

지금까지 Wave 5와 Wave 6의 이슬람 국가와 비이슬람 국가의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문화패턴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슬람 국가와 비이슬람 국가의 가치관변화를 <그림 9>와 같이 정리하였다. 말레이시아, 이집트, 요르단은 자기강화에서 자기초월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터키와 이집트는 변화에 대한 보수주의에서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는 방향을 변화하였지만, 모로코와 말레이시아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지고 보수주의 경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자세한 방향은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와 같이 요르단, 모로코, 터키, 이집트는 Wave 5에서 Wave 6 사이에 보수주의와 변화개방 모두 감소하였고 말레이시아는 보수주의는 증가하였고 변화개방은 약간 감소하였다.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는 Wave 5에서 Wave 6 사이에 자기강화와 자기초월 모두 감소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자기강화와 자기초월 모두 증가하였다.

〈표 5〉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 분석

	보수주의 (안전+전통+동조)		변화개방 (자율+자극+쾌락)		변화개방-보수주의 차이		자기강화 (권력+성취)		자기초월 (박애+보편주의)		자기강화-자기초월 차이	
	Wave5	Wave6	Wave5	Wave6	Wave5	Wave6	Wave5	Wave6	Wave5	Wave6	Wave5	Wave6
요르단	5.355	5.183	4.720	4.252	-0.635	-0.931	4.649	4.413	5.290	5.045	-0.641	-0.632
말레이시아	4.337	4.785	3.573	3.534	-0.764	-1.251	3.770	3.922	4.187	4.632	-0.417	-0.710
모로코	4.890	4.763	3.889	3.455	-1.001	-1.308	4.267	3.320	4.661	4.529	-0.394	-1.209
터키	4.863	4.749	3.990	4.228	-0.873	-0.522	4.060	4.195	4.991	4.779	-0.931	-0.584
이집트	5.447	4.925	3.517	3.598	-1.930	-1.328	3.741	3.734	4.855	4.658	-1.114	-0.924

주) 변화개방-보수주의 차이에서 +는 변화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는 보수주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기강화-자기초월 차이에는 +는 자기강화가 높다는 의미이며 -는 자기초월이 높다는 의미.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슬람 국가의 문화가치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슈워츠(Schwartz)의 10가지 가치관과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르단의 자율, 권력, 쾌락, 박애, 성취, 자극, 동조, 보편주의, 전통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권력, 안전, 박애, 성취, 동조, 보편주의, 전통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였고 자극에 대한 중요성만 감소하여 요르단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모로코의 자극, 동조, 보편주의는 변화가 없었으나 자율, 권력, 안전, 쾌락, 성취, 전통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터키는 권력, 쾌락, 자극은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안전, 박애, 성취, 보편주의, 전통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복잡한 변화 패턴을 보였다. 이집트의 경우 자율, 권력, 자극의 중요성은 증가한 반면 다른 가치관 항목은 모두 중요성이 감

소하였다. 결국에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터키, 이집트의 경우 복잡한 패턴을 보였지만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들 5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전통, 안전, 보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주의-변화개방과 자기초월-자기강화의 영역에서 말레이시아, 이집트, 요르단은 자기초월이 높아졌고 터키와 이집트는 변화에 대한 보수주의에서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는 방향을 변화하였다. 모로코와 말레이시아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지고 보수주의 경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가치관 변화를 분석했는데 의의가 있지만 변화의 분석대상 기간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교경영연구에서 가치관 변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50년 등 긴 시간의 변화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슈워츠(Schwartz)의 문화가치관을 대상으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홉스테드나 다른 주요 국가 간 가치관 차이를 분석하는 문화차원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추후 지속적인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ouse, R., Hanges, P., Javidan, M., Dorfman, P., & Gupta, V. eds.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Inglehart, R., & Abramson, P. R. 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36 - 354.
- Inglehart, R., & Baker, W. E.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51.
- Murphy Jr, E. F., Gordon, J. D., & Mullen, A. 2004. "A preliminary study exploring the valu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1), 81-96.
- Olivas-Luján, M. R., Harzing, A. W., & McCoy, S. 2004. "Two Quasi-Experiments on the Influence of Threats on Cultural Values and Cosmopolit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4(2), 211-228.
- Schwartz, S. 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Thousand Oaks, CA: Sage.*
- Tang, L., & Koveos, P. E. 2008. "A framework to update Hofstede's cultural value indices: economic dynamics and institutional sta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6), 1045-1063.
- Taras, V., Steel, P., & Kirkman, B. L. 2012. "Improving national cultural indices using a longitudinal meta-analysis of Hofstede's dimensions." *Journal of World Business* 47(3), 329-341.

Abstract

**Cultural Changes in Five Islamic Countrie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Jordan, Malaysia,
Morocco, Turkey and Egypt**

Ji Seok Lee ■ Semyung University

Oh Suk Yang ■ Kangwon University

Raul Moretti ■ Kangwon University

Jong Wook Kwon ■ Kangwo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changes in cultural values of Muslim countries. Specifically, Schwartz's ten values and the areas of conservatism/openness to change and self-transcendence/self - enhancement were analyzed. Very complex cultural change patterns in Jordan, Malaysia, Morocco, Turkey and Egypt were found. These five Islamic countries changed to consider tradition, safety and universalism as more important factors in common. In terms of conservatism/openness to change and self-transcendence/self - enhancement, the importance of self-transcendence, showed an increase in Malaysia, Egypt and Jordan. Turkey and Egypt have changed in the direction from increased opennes to conservatism to change. Morocco and Malaysia have shifted toward less opennes to change.

Key Words: Islam, Schwartz, Cultural change

